

## 江都 江華中城의 築城과 三別抄

김 호 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강화중성의 현황 1. 강화중성의 축성 과정 2. 강화중성의 축성 방식	III. 강화중성의 축성주제 및 삼별초의 항전기지 1. 강화중성의 축성주제 2. 삼별초 항전기지의 특징 IV. 맺음말
--	--

## I. 머리말

13세기의 고려는 몽골제국이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영향을 미친 전쟁에 휩싸였다. 당시 고려는 내부적으로는 무인정권의 독재체제가 확립되었고, 여진족이 세운 금에 대한 사대관계와 거란 유민에 의한 침공을 경험한 뒤였다. 고려는 1219년 강동성에서 거란유민을 추격해온 몽골제국과의 첫 접촉 이후, 몽골제국의 강압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몽골제국의 고려 침공은 고려의 무인정권에 의해 항전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이에 따라 1231년부터 127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항쟁이 전개되었다. 몽골의 1차 침략 이후 고려 정부가 강화로 천도를 결정한 것은 고종 19년(1232년) 6월 16일이다.<sup>1)</sup> 당시 집권자 최우의 신속한 결정과 강요에 못 이겨 고종은 7월 7일에 강화도에 도착하였다.<sup>2)</sup> 강화에의 천도는 당시 정권을 장악하던 최우의 결단과 이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 외에는 왕과 군신 및 개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화도는 천도 이후 39년간 고려의 도읍으로 자리했고, 장기항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전략적 기반이 되었다.

江都의 전체 도시 체재와 구조는 철저히 개경의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강도에 새로 건립된 궁궐과 관청, 성문 그리고 주변 산들의 이름을 개경의 것을 그대로 빌려와 사용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sup>3)</sup> 송악산을 주산(主山)으로 잡고 그 아래 궁궐을 짓고 이를 둘러싼 도성을 구축하는 양상은 개경의 도시 구조와 완전히 같은 것이었다. 강화도라는 정해진 면적의 한계와 대몽항쟁이라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 그 규모와 형태는 개경에 비해 조금 작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도에는 내성(혹 궁성), 중성, 외성 등이 축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고려시기 강화 도성에 대한 연구성과 중 문헌을 통해서 내성-중성-외성의 존재를 고려 고종 24년(1237), 고종 37년(1250), 고종 46년(1259) 기사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이러한 기사

1)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6월. “崔瑀, 會幸樞於其第, 議遷都...”

2)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7월. “乙酉 王發開京 次于昇天府 丙戌 入御江華客館...”

3) 윤용혁은 강화도성의 구조 및 시설물의 배치 상태에 대하여 기존 연구 성과의 검토와 최근의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고증하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尹龍赫, 2011, 「II. 고려 도성으로서의 강도의 제문제」: 「III.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pp.244~314.) 그리고 최근에 이희인은 고려 강도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와 고고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한 바 있다.(이희인, 2012,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4) 김창현은 개경의 자료를 염두에 두면서 강화도성의 구조를 검토하여 궁성, 중성, 외성 이외에 황성의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였다.(김창현, 2005,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한국사연구』 127.) 궁성과 황성의 존재에 대해서는 향후 고고학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 판단된다.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기록을 바탕으로 내성과 중성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나왔다. 그러나 내성과 고려궁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고고학결과를 통해 보면<sup>6)</sup>, 현재의 비정된 위치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2009년 강화 옥림리 구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강화 중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의 현황과 규모 및 축조방식이 자세하게 밝혀졌다.<sup>7)</sup> 이와 반면에 외성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강도 당시와 조선시대 외성과의 중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 고려 및 조선시대 외성을 구분한 발굴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다.<sup>8)</sup> 이렇듯 강화도의 대몽항쟁기 성곽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그 당시 전쟁의 현장에 대한 연구,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한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9)</sup>

江都는 그동안 당연히 되어 왔던 고려궁지의 위치가 불분명한 가운데, 창리-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sup>10)</sup>과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구간<sup>11)</sup>에서 강화중성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고려 江都 시기인 1250년(고종 37)에 축성된 강화중성은 온전하게 원형이 남아 있으며, 고려시대 판축토성의 축조기법과 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강화내성과 강화외성의 존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화중성은 고려시대 도성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강화중성의 고고학성과는 제주도의 향파두리성과 비교할 때, 토축성벽과 축조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증빙해 준다. 이는 대몽항쟁기 해도 입보용 성곽 중 도성 계열의 성곽조사 및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로 항전을 위한 거점의 이동을 한 맥락에서 보면, 삼별초와 관련하여 제주 향파두리성 축성주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강화중성의 현황과 관련하여 축성과정 및 방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화 중성의 축성주체와 관련하여 삼별초가 과연 축성 주체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겠다. 그리고 삼별초의 항전기지였던 진도 용장성 및 제주 향파두리성과 관련하여 입지적 조건, 성곽의 배치구조, 토축성벽의 축성방식에 대한 비교 및 공통점에 대해서

- 5) 강도의 해안 외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고고학 조사로 확인된 강화중성을 외성으로 보려는 견해는 1917년 일제 초기 西龍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다. 그 후 신안식과 박성우에 의해 지지된 바 있으며, 최근에 이희인이 고고학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강화도성의 구조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안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증빙할 고고학 자료도 부족하며 향후 해명해야할 의문이 많다.(윤용혁, 2014,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혜안, pp.88~99.) 필자 또한 윤용혁의 지적과 같이 강도의 해안 외성이 존재하지 않고, 외성=중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
- 6) 강화도 성곽에 대한 전체 조사는 육군박물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내성과 조선시대의 내성(강화부성) 중 고려시대 강화 내성은 확인하지 못했고, 조선시대의 내성의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다.(육군박물관,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pp.72~73.) 그 이후 고려궁지에 대해서는 2개 기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한림대박물관, 2003, 『강화고려궁지(외규장각지)』.;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조선 궁전지Ⅱ』.) 조사결과 유구와 유물은 조선시대로 비정되며, 고려시대 유구 및 유물의 빈도수가 빈약하였다. 보고서에서 모두 고려궁지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목에서 보듯이 어느 곳에서도 고려궁지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외규장각지 및 조선 궁전지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고려 궁궐은 현재의 고려궁지 보다 훨씬 남쪽 일대를 발굴조사 한다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 7)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강화 옥림리 유적』.
- 8) 이희인은 고려 궁지는 현재의 고려궁지 추정지 보다 서쪽에 존재했을 개연성과 강화도의 해안외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현재 통칭되는 중성을 외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이희인, 2012,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 9) 尹龍燾,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pp.47~50.
- 10) 인하대학교박물관, 2011, 『강화 중성유적 : 강화군 창리~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11)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강화 옥림리 유적』.

살펴보겠다.<sup>12)</sup>

## II. 강화중성의 현황

### 1. 강화중성의 축성 과정

江華島는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으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의 하구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다. 섬의 규모는 동서가 16km, 남북 28km, 해안선 둘레는 112km이며, 면적은 405.2km<sup>2</sup>이다. 강화도는 원래 김포반도와 연결된 육지였으나, 오랜 해수와 강의 침식작용으로 평탄화된 뒤 침강운동으로 육지에서 구릉성 섬으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작용으로 해안선은 절벽과 같은 석벽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갯벌이 넓게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서해안의 조수 간만차가 매우 크고, 북쪽과 동쪽의 해협에는 조류가 매우 빠르다. 이처럼 강화도는 섬 주변의 갯벌과 7~8m에 달하는 潮差와 빠른 조류의 속도가 빨라서, 승천포와 갑곶 등 제한된 지점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천혜의 요새였다.<sup>13)</sup>

몽골의 1차 침략 이후 고려 정부가 강화로 천도를 결정한 것은 고종 19년(1232년) 6월 16일이다.<sup>14)</sup> 당시 집권자 최우의 신속한 결정에 의해, 7월 7일 고종이 강화에 입도하였다.<sup>15)</sup>

강도 건설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1232년 7월에 2령(약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궁궐 공사를 시작하였으며,<sup>16)</sup> 1234년 정월에 여러 도의 장정들을 동원해 궁궐 및 百司를 경영하였다.<sup>17)</sup> 1233년에는 강화 외성을 쌓았으며, 1235년에는 강화 ‘沿江堤岸’을 추가로 쌓았고, 1237년에는 강화 외성을 축조하였으며, 1250년에는 강화 중성을 축조하였다.<sup>18)</sup>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여러 시설물의 창건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高麗史』에는 강화 중성을 처음 쌓은 것이 고려 고종 42년(1250)이었으며, 그 규모는 2,960間에 대·소문이 17개라고 하였다.<sup>19)</sup> 또 8개의 대문이 있는데, 모두 송도의 이름을 본 딴 것이라고 하였다. 『續修增補江都誌』에는 중성의 규모가 2리 13정 30간의 토축이며, 중성이 축조된 위치는 옥림리 성문현~봉악 동북~송악~용장현~연화동~남산~선행리에서 평원을 지나서 냉정현~대문현에서 산등성이를 따라서 도문현~현당산~창성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sup>20)</sup>

중성이 축성된 시점은 몽골의 5차 전쟁 이전으로, 1247년 4차 전쟁 당시 몽골군이 강화도와 인접한 황도 염주에 주둔하면서 강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높아진 이후로 추정된다. 몽골군이 주둔한 곳은 강화도의 북쪽으로 내륙에서 강화로 접근할 수 있는 승천포와 갑곶 중 승천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군이 이전 전쟁과 달리 강도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됨으로써, 기존의 승천포 일대의 해안 외성이 뚫릴 경우, 바로 강도의 심장부인 내성(궁궐)에 대한 침입을 저지하기 힘들게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군의 강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위협과 상륙에 대한 방어를 하기

12)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위주로 정리하였다.(김호준, 2012, 『高麗 대몽항쟁기 축성과 입보』, 충북대학사학위논문.)

13) 이희인, 2012,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학사학위논문, pp.45~48.

14)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6월. “崔瑀, 會幸樞於其第, 議遷都...”

15)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7월. “乙酉 王發開京 次于昇天府 丙戌 入御江華客館...”

16)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7월. “瑀 發二領軍 始營宮闕于江華”

17) 『高麗史』 卷23 고종 21년 정월. “徵諸道民丁, 營宮闕及百司”

18) 『高麗史』 卷23 고종 19년 7월. “始築江都中城”

19) 『高麗史』 卷82 지36 병2 城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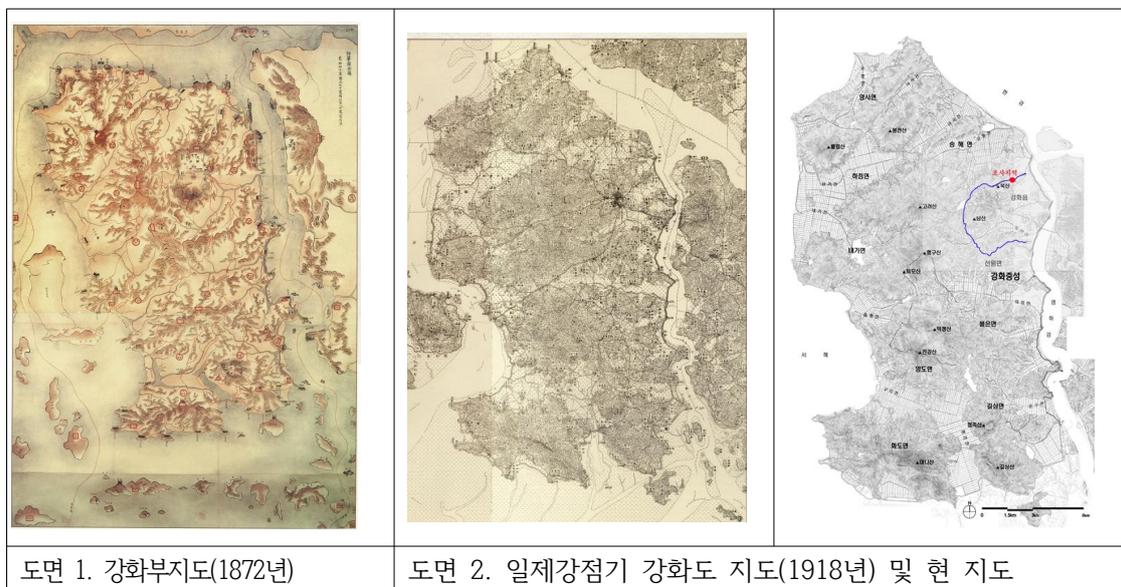
20) 『續修增補 江都誌』 제6장 2절, 고적.

위해서는 내성을 중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성곽 즉 중성의 축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성은 축조 이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강도의 성곽은 몽고와 강화를 맺으면서 1259년에 고려정부는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데, 이 때 몽고의 요구로 강화 내성과 외성이 함께 헐리게 된다. 이 당시 중성이 같이 헐리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강화 중성과 관련된 문헌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1. 강화 중성 관련 문헌기록<sup>21)</sup>

연 대	내 용	수록 문헌
고려 고종 19년(1232)	최우가 2령군을 보내 강화에 궁궐을 축조함.	高麗史節要
고려 고종 22년~25년 (1235~1238)	강화 연안에 독을 쌓음.(강화연안 간척 사업 시작)	東國文獻備考
고려 고종 24년(1237)	강화에 외성을 쌓음.	高麗史, 高麗史節要
고려 고종 37년(1250)	* 강도에 중성을 쌓음. * 중성의 규모는 2,960間이고, 대·소문이 17개임.	
고려 고종 46년(1259)	몽고가 강도의 내성과 외성을 모두 헐어버림.	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중종 25년(1530)	선왕이 합단적을 피해 강화에 와서 사직을 보존하였지만 지금은 빈성과 대궐만 남았음.	
조선 숙종 16년(1690)	고려산과 혈구산 사이가 두어리 좁 되고 그 가운데 작은 고개에 성이 있음.	肅宗實錄
조선 숙종 36년(1710)	6리 남짓한 내성의 동남쪽으로 2리 쯤에 구성(舊城)이 있음.	肅宗實錄
조선 정조 원년(1776) 저자 : 이금익	고려 고종 24년에 외성을 쌓고 30년에 중성을 쌓음.	練藜室記述 卷17
조선 고종 8년(1871) 저자 : 이유원	고려 고종 때 외성과 중성 2,960칸을 쌓음.	林下筆記
일제강점기(1932) 편저 : 박헌용	중성의 규모는 2리 13정 30간의 토축이며, 중성이 축조된 위치는 옥림리~봉악 동북~송악~용장현~연화동~남산~선행리에서 평원을 지나 냉정현~대문현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도문현~현당산~장성에 이름.	續修增補 江都誌



21)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강화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강화군 문화예술과. 수록 된 표를 필자가 재정리하였다.



사진 1. 강화중성 중심토루 구성과 관련한 유구의 흔적<sup>22)</sup>

## 2. 강화중성의 축성 방식

강화 중성<sup>23)</sup>은 강화읍의 월곶리, 대산리, 관청리와 선원면의 선생리, 창리, 신정리 등 1읍 1면 7리에 걸쳐 축조된 성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으로는 강화도에 몽고군의 침입에 대비해 내성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고종 37년(1250)에 쌓았다.

강화 중성은 북산의 북장대에서 남산의 남장대까지는 강화내성과 중첩된다고 한다. 다시 북쪽으로 북장대에서 옥림리의 옥창돈대까지 약 1.8km,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장대에서 가리산 돈대와 갑곶돈대 사이 외성의 한 지점까지 약 6.3km에 이른다. 연결된 총 길이는 약 8.1km에 달한다.<sup>24)</sup> 평면 형태는 'ㄷ'자에 가까우며 송악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이어져있다. 중성의 축조 목적은 강화 내성을 둘러싸고 해안 방어성인 외성과 궁성인 내성 사

22)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09,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J구간 문화재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p.24에서 전재하였다.

23)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강화 옥림리 유적』을 참조하였음.

중성에 대한 정밀 조사는 2010년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재)한울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아 있는 성벽의 총구간과 잔존 상태에 대한 수치적인 내용이 확보되었다. 또한 중성의 서쪽 구간 일부가 국화 저수지 조성으로 인해 침수된 사실과 문헌에 기록된 문지의 위치도 대부분 확인되었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위의 책.), 2009년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실시하면서 공사 구간 안에 위치한 강화 중성의 남쪽 구간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중성의 축조 양상에 대한 첫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해 중성 축조의 양상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일정한 판축 틀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차례 흙을 다져 성벽을 만들고 외피를 둘러 쌓은 것이 확인되었다. (인하대학교박물관, 2011, 『강화 중성유적 : 강화군 창리~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필자는 1235년 축조한 강화제방, 1237년 축성한 강화 외성, 1259년 내성과 외성을 허물었다는 기사의 외성 현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강화 외성과 중성의 구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江都의 내·중·외성의 현황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강화 외성과 중성, 내성이 연결되는 부분의 성벽에 대한 고고학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4)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新編 江華史』上.



를 강화하였다. 2차 판축은 판목시설에서 종판목을 설치한 후 암갈색 사질토와 적갈색 사질토를 뒤섞어가며 3cm~5cm 정도의 평균 두께로 판축하였다. 3차 판축은 2차와 같으나 판축층의 두께가 8~15cm 정도로 두꺼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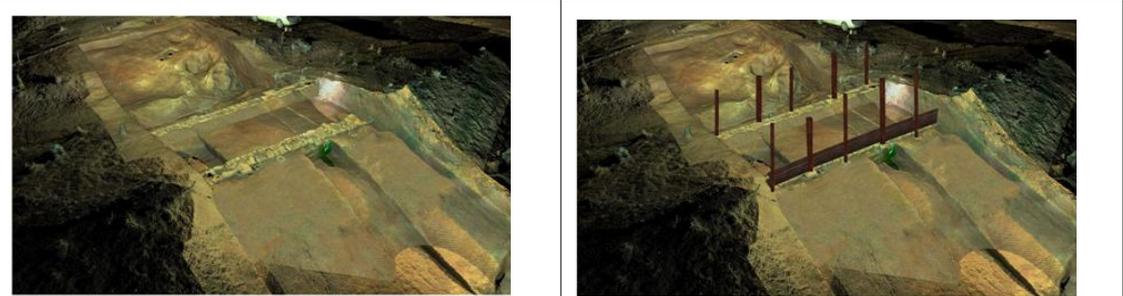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한 판축용 틀은 기저부 석축렬 위로 4m 간격마다 초석을 놓아 영정주를 세운 후, 너비 20cm 내외의 횡판목과 종판목을 결구하여 틀을 구성한 후, 다시 바깥쪽으로 중간기둥과 보조기둥을 연결하여 판축틀을 고정하였다. 확인된 판축용 틀의 1개 작업공간은 길이 4m, 너비 4.5m이다.

내·외측 토루는 중심토루의 측면에 사면으로 덧붙여 성토한 것으로 중심토루에 사용된 토사와 사질토 및 석비레 등을 섞어 조성하였다. 내·외측 토루 기저면에는 와적층을 조성하였는데, 평기와를 작게 깨서 외측에 3.8m, 내측에 2.9m 범위를 보인다. 와적층 내외측에 'U'자 형태의 구를 조성했는데, 구의 기능은 와적층의 기와가 밀려나가지 않게 함과 동시에 내·외측 토루 내부로 흐르는 유수의 배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측 토루는 내측 수로까지 최대 4m, 외측 토루는 최대 7m 정도 지형에 맞게 폭을 유지하였다.

외피토루는 대부분 유수에 삭평된 것으로 보이나, 내외측 토루 상면의 사질토를 통해 보면 20~30cm 정도로 피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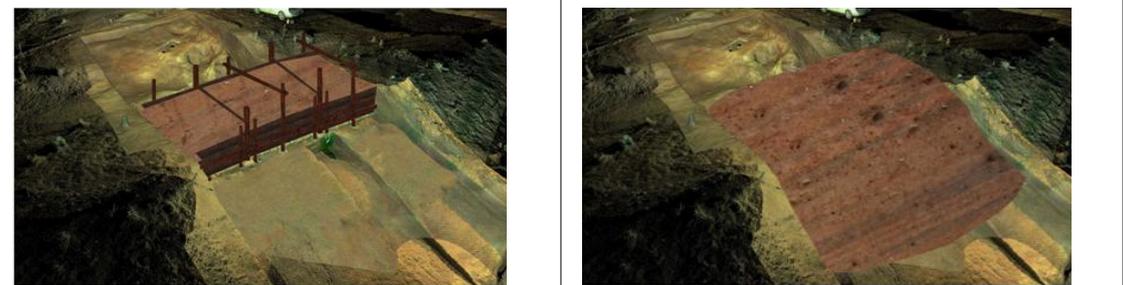


사진 2. 강화 중성 내외부 와적층



① 암반 면 정지 후 기저부 및 석렬 축조

② 중심토루 판축틀(거푸집) 설치



③ 중심토루 판축 과정

④ 중심토루 내외면 보조토루 조성 후

도면 4. 강화중성 축성과정 모식도<sup>26)</sup>

도면 4는 강화중성 축조과정을 모식화 한 것이다. ①은 성벽이 축조된 위치에 기저암반면을 정지 한 후, 그 상면에 점질토로 기저부를 조성하고 기저부 석렬을 배치한 상태를 보여준다. ②는 기저부 석렬 상면에 판축틀을 설치하고, 기저부 석렬 중에 설치한 초석 위로 영정주를 세워 판축틀(거푸집)을 보강한 상태를 보여준다. ③은 중심토루를 판축하는 과정으로 판축틀의 영정주를 보조하는 기둥과 종장목과 횡장목을 설치하여 판축틀이 토압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④는 중심토루를 조성한 후에 내외면에 보조토루를 덧붙인 후 외피토루를 조성한 모습을 보여준다.

강화중성 성벽은 외측 높이 3m 정도, 너비 약 14.5m 정도의 규모이다. 조사 결과 판축토루를 축조하기 위한 기초시설인 내·외 기저부석렬, 판축공사시 판축토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축용 틀(내부 흙을 쌓고 다지기 위한 거푸집) 흔적, 중심토루에 덧붙여 쌓은 내·외측 토루 등이 확인되어 고려 13세기 판축토성의 구조와 기법, 축조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 Ⅲ. 강화중성의 축성주체 및 삼별초의 항전기지

고려는 몽골의 파상적인 압박과 연이은 침공으로 강도로 천도하였지만, 몽골의 기동성과 군사조직, 다양한 공성전술에 대항하기 위해 海島와 山城入保라는 청야전술로 대몽전략을 이끌었다. 1차 전쟁 이후 개경을 강화도로 천도하고, 지방 諸道에 대하여 백성들을 산성 및 해도에 입보게 하였다. 강화천도는 차후 대몽항전의 전개 양상을 海島入保의 차원으로 공식화한 것이었다.<sup>27)</sup> 그후 고려는 비록 강화 천도 및 해도로 입보하였지만, 40여년의 대몽항쟁기간 동안 公兵·私兵의인 삼별초를 고려 군사력의 중심으로 삼아 항전을 이끌어 나갔다.<sup>28)</sup>

삼별초는 1170년(의종 24) 무인정변 이후, 최씨정권에서 대몽전쟁과 대민지배의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최씨정권 몰락이후에도 정치권력 향방의 중요한 군사적 기반이었다. 그러나 무인정권의 몰락에 이은 1270년 삼별초의 해체를 통해 새로운 대몽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sup>29)</sup> 이와 더불어 그들이 고려정부에 맞서 진도 및 제주도에까지 내려가 축성한 진도 용장성과 제주 향파두리성은 江都和 같이 海島에 입지하며, 都城 계열의 성곽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sup>30)</sup>

26) (재)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강화 옥림리 유적』에서 부분 전재하였다. 그리고 이 모식도에 대해서는 발굴에 참여한 김병희·조인규 선생님의 자문을 구하였다.

27) 대몽항쟁기 해도 입보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尹龍焄, 1982,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pp.55~82.

姜在光, 2008,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事』 66, pp.27~62.

崔鍾奭, 2008, 「대몽항쟁 원간접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 pp.37~71.

尹京鎮, 2010, 「고려 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pp.115~148.

김호준, 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충북대박사학위논문.

이희인, 2012,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28) 윤용혁, 2014,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29) 삼별초는 公兵·私兵의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대몽항쟁기 정세의 변화에 따라 삼별초 항쟁의 의의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견해가 발생하였다.(신안식, 2002, 「高麗 元宗 11年(1270) 三別抄抗爭의 背景」, 『명지사론』 13집.)

30) 윤용혁은 대몽항쟁기 삼별초와 관련하여 문헌과 고고학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정리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윤용혁, 2014,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이장에서는 강도 강화중성의 축성주체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과연 강화중성이 삼별초에 의해 축성 되었을까? 하는 의문에 해답을 찾으면서, 삼별초가 항전을 이끌었던 진도 용장성과 제주 향파두리성에 대한 입지 및 배치, 축성방식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강화중성의 축성주체

고려시대에는 將作監이라는 관청에서 土木工事와 宮闕 및 官舎의 築造와 修理를 담당하였다. 고려 중앙관제는 성종대에 당제와 송제를 도입하여 성립되었고, 문종대에 그 典型이 완성되었다. 그 후 문종대 관제는 3省·6部·寺監 등의 관부를 正從 18官品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등 그 기본 모델이 唐六典으로 대표되는 당나라 초기의 관제였다.<sup>31)</sup> 唐六典에서는 장작감의 기능이 나라의 토목 사업에 공급될 재원과 장인의 정령을 관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左校·右校·中校·甄官 4개의 冑와 3개의 監 및 온갖 장인의 관속들을 총령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력과 자재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작감은 土木營繕을 관장하기 위한 각종 인력과 자재의 공급 및 인력과 자재의 유지 및 관리가 주요 업무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sup>32)</sup>

고려시대 장작감은 토목영선을 관장하였을 뿐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실행은 營建都監, 修理都監 등의 임시관서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견어 들인 세금을 수납 보관하여 공사에 사용될 인력과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sup>33)</sup> 이러한 사례는 고려 현종 때 충남 직산에 있는 弘慶院과 문종 10년 흥왕사를 건립한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34)</sup> 특히 흥경원 건립시 '別監使'를 두어 국가의 지원 없이 백성들의 노동력과 와공과 나무꾼, 목수들을 징발하여 건립하였다. 흥왕사의 경우는 병기 제조에 필요한 철을 공납 받았고, 와장 및 그를 보좌하는 무리들도 징발되어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35)</sup>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되고 있는 파주 혜음원지의 기록에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sup>36)</sup> 파주 혜음원지는 高麗 睿宗 15(1120)년 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同王 17(1122)년 2월에 완공되었다. 이 때 국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別院도 축조되었다고 전한다. 두 기록으로 보아, 혜음원은 고려 중기 개경과 남경 사이에 건립된 일종의 국립숙박기관으로 보이며, 국왕의 행차를 대비한 행궁(별원)도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惠陰寺新創記』의 내용을 보면, 파주 혜음원지는 이소천이 왕에게 남경과 개성사이의 교통로에 대한 안전책으로 요충지가 되는 혜음령에 원을 세워 민간 여행자를 보호할 것을 건의하였고, 국가의 재정적인 형편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천이 장작감에 소속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급관리로서 왕실과 혜음원 공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의 주체는 묘향산의 승려의 혜관과 부지런하며 진실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證如 등 16명이 선발되어 경비를 마련하여 축조에 참여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비구 응제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도록 하고, 제자 민청을 부책임으로 하였다고 하였다. 기록의 차이는 있지만, 혜음원은 국왕의 명령과 왕실의 후원 하에 응제, 민청과 같은 승려 집단이 공사의 책임을 맡았고, 다수의 신도들이 경제적 후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별초』, 혜안.)

31) 김대식, 2012, 「고려전기 중앙관제와 唐宋」, 『역사와 현실』 86집, p.111.

32) 나영훈, 2012, 「조선초기 繕工監의 운영과 관원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62집, pp.121~122.

33) 김재명, 1998, 「고려시대 寺·監 관사와 국가재정- 태부시와 장작감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4집.

34) 이정신, 2006,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pp.71~98.

35) 이정신, 2006, 위의 글, pp.77~78.

36) 『東文選』과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김부식이撰한 「惠陰寺新創記」가 실려 있다.

이렇듯 고려시대 국가 및 왕실 지원 토목공사는 관료들이 토목영선을 관장하였을 뿐 직접 수행하지 않았고, 실제 파견된 營建都監, 修理都監 등의 임시관서에서 공사의 관리를 맡아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사는 징발된 기술집단이 담당하거나, 혜음원지와 같이 승려들이 자발적인 노동의 제공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강도의 강화중성의 축조는 고려시대 전기의 토목공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개경 나성의 경우, 연인원 30만 4천 4백명이 축성에 투입되었다.<sup>37)</sup> 이때 동원된 인부는 군사 혹은 징발된 기술자 및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강도 초기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1232년 7월에 2領(약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한 궁궐 공사, 1234년 정월에 여러 도의 장정들을 동원해 궁궐 및 百司를 경영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고려시대 국가적인 토목공사는 조선시대이지만, 한양도성 축성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sup>38)</sup>

강도의 성곽과 관련하여 1233년에서 축성하여 1237년에 완성된 강화 외성과, 1235년의 강화 ‘沿江堤岸’, 1250년에 완성된 강화 중성도 고려시대 국가 및 왕실 지원 토목공사로 한정한다면, 실제 공사에 참가한 인부는 군사 및 동원된 백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별초가 강도의 성곽 축조의 주체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고려시대 장작감이 토목영선을 관장하였으나, 삼별초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보호하거나 감시하였을 임무에 투입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삼별초는 진도 및 제주도로 항전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강화 중성 및 궁궐을 조영할 때의 축성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도 우연의 일치라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 2. 삼별초 항전기지의 특징

삼별초의 항전기지는 대몽항쟁기 해도 입보용 성곽으로 비정되며, 강화도의 강화 외성과 중성, 진도의 용장성, 제주도의 향파두리성을 들 수 있다. 이들 성곽의 공통점은 海島에 입지하며, 都城 계열의 성곽이라는 점이다. 강화도는 강도정부 입장에서 지리적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진도와 제주도는 삼별초 입장에서 지리적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각 도성 계열의 성곽이 입지한 해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海島 입지에서 강화도가 지니는 장점은 앞서 살핀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水戰에 취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점이라는 점, 둘째 육지에 접근하면서도 조석간만 차와 潮流 등으로 적의 접근이 용이치 않다는 점, 셋째 개경과의 접근성, 넷째 지방과의 연결 혹은 漕運 등의 편의성, 다섯째 수원 확보 및 입보민의 생계 해결할 수 있는 농경지와 간척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에 입각하여 고려는 강화도로 천도하여 몽골군의 예봉을 피하고 海島·山城入保策과 더불어 장기적인 항전체제로 이끌고 가면서 기존의 해상교통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해안의 도서와 내륙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진도는 삼별초의 최초 거점이었기에 삼별초의 입장에서 진도의 입지의 장점을 정리해 보면 다섯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강화도에서 364km 떨어져 있지만, 강화도의 선박을 이용해 남하하기 용이하다는 점, 둘째 해도입보책과 강화도천도 시 고려했던 몽골군의 해상공격이 어려운 해도라는 점, 셋째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토벌군의 편성과 이동을 고려했을 때 진도 입

37) 『高麗史』 卷56 志10 地理1 王京開城府

38) 라경준, 2012, 『조선 속종대 관방시설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보 초기에 독자적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적합하다는 점, 넷째 진도는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漕運시스템의 요충지로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거둔 조곡 운반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진도는 땅이 기름지고, 농수산물이 풍부하여 삼별초 및 그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특히 진도는 주변 내륙 연안에 최씨 무인정권이 소유한 대규모 농장과 최항이 진도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별초가 진도로 남하하기 전에 최씨 정권과 같이 대몽항쟁에 동조하는 세력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도의 삼별초는 나주지역 공략에 실패함으로써 진도가 갖는 입지조건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진도의 삼별초에게 있어서 나주지역은 내륙의 서남부 영역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영산강 유역의 조운 시스템을 확보하고, 여몽연합군의 군사적 방어기지로써 매우 중요하였다. 909년 궁예 휘하의 왕건이 진도를 확보하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 견훤의 방어를 뚫고 나주를 함락했던 것은 진도와 나주가 전략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도 삼별초는 나주공략의 실패로 김방경을 비롯한 여몽연합군이 나주를 거점으로 하여 영산강을 따라 진도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군사 전략적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sup>39)</sup> 그래서 차선의 방책으로 제주도 공략에 나서게 되었다.

삼별초 입장에서 제주도가 갖는 입지의 장점은 첫째 진도와 해상으로 108km 떨어져 있어 진도의 배후 거점 해도로 적합한 점, 둘째 제주도는 고려정부의 세력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독자적 세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용이한 점, 셋째 진도보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여몽연합군이 제주도를 정벌하는데 필요한 수군과 군함 등의 제반여건을 갖추는데 물자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넷째 제주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로 본토의 남해와 서해 일대의 해상제해권과 일본의 큐슈와 오키나와 등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으로 일본민의 생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9) 윤용혁, 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 목포대학교박물관, pp.51~76.

40)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p.52에서 전재.

## 2) 성곽의 배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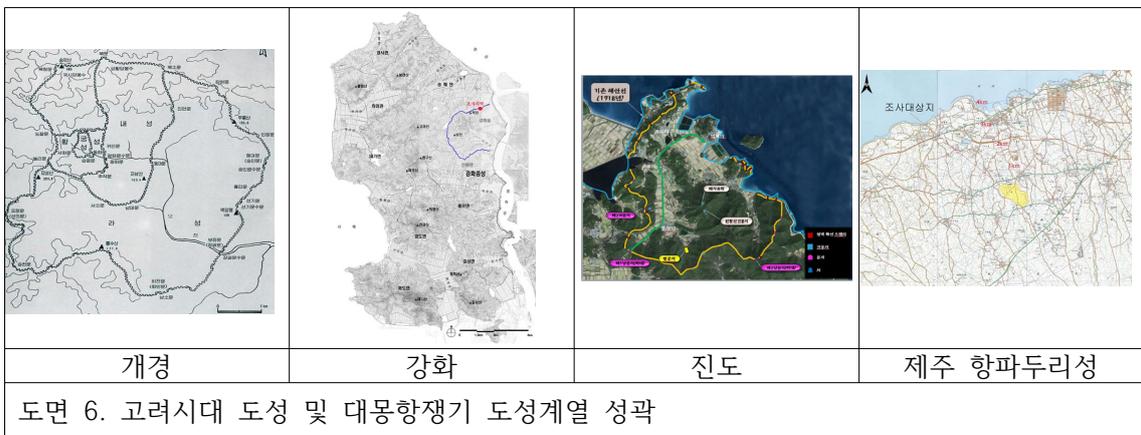
중국의 사례와 개경의 성곽구조를 통해 보면 강도의 성곽과 진도 용장성, 제주 향파두리성의 배치 구조는 도성계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도성은 단일 성곽·二重·三重의 성곽체제로 이루어졌다. 二重의 경우에는 안쪽을 ‘子城’(牙城·小城)이라 부르고, 바깥쪽을 ‘羅城’(大城)이라고 불렀다. 子城 내에는 황제의 거처와 官衙들이 세워졌고, 羅城 내에는 民家·寺院과 子城 내에 수용하지 못한 관아들이 자리 잡았다. 또한 子城은 羅城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북쪽 혹은 남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三重의 경우에는 제일 안쪽의 것을 皇城, 그 다음을 內城(內城·裏城), 맨 바깥쪽을 新城(外城)이라고 불렀다(宋 開封). 城壁에는 子城·羅城 모두 門이 설치되었다. 羅城의 성문으로는 3~4개 혹은 10여 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宋 開封의 外城 성문은 16개였다고 한다. 이러한 都城 이외의 縣城·州城 등은 보통 단일 성곽으로 이루어졌다.<sup>41)</sup>

開京은 宮城—皇城—羅城의 3중 성곽구조이다. 궁성은 본 대궐을 둘러싼 것이다. 그리고 이 궁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황성이며, 황성을 둘러싼 것이 나성(외성)이었다.

강도와 진도의 용장성, 제주도의 향파두리성은 왕실과 같은 주요 건물지를 보호하기 위해 궁성 혹은 내성이 축조되었다. 그 외곽의 외성은 충주읍성의 외성과 같이 구릉이나 산의 정상부를 연결하여 축조하였으며, 내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강도의 외성은 강화도 해안 둘레 112km 중 육지와 인접한 북쪽과 동쪽 해안가를 따라 평지와 능선의 사면에 약 24km에 걸쳐 축조되었다. 제주도의 沿海長城은 대몽항쟁기 삼별초와 관련되어 축조되었고, 기록에 의해 300리 정도로 120km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축성된 지역은 해안으로 상륙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제주도 북부 해안에 걸쳐 축성되었다.

강도의 성곽은 외성-중성-내성의 체제이며, 용장성은 외성과 내성, 향파두리성은 외성과 내성의 체제이다. 강도의 성곽 구조와 제주도 향파두리성의 구조는 제주도 해안변에 축성된 연해장성을 포함한다면 강도의 성곽과 같은 3중 구조로 볼 수 있다. 강도의 성곽이 고려 도성인 개경의 구조와 같다고 본다면, 제주 향파두리성도 강도의 성곽과 같은 구조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개경 나성은 산능선과 평지에 축조되어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했으나, 강화 외성과 제주 연해장성은 섬에 위치한 점으로 미루어 해안 방어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1) 山根幸夫, 李相棣譯, 1994, 『中國의 中世 都市』,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pp.128~129.

### 3) 土築城壁 築城方式의 공통점

고려 개성의 황성과 강화 중성, 제주 향파두리 외성은 토축성벽<sup>42)</sup>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고고학 조사를 통해 그 현황이 알려진 것은 강화 중성과 제주 향파두리 외성이다.

일반적으로 토축성벽의 구조는 기저부, 기저부 석렬<sup>43)</sup>+중심토루, 내외측토루, 기타 시설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화 중성은 기저암반을 정지한 후 그 위에 점질토를 피복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심토루를 조성하기 위해 판축용 틀을 설치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판축용 틀은 기저부 석렬 위로 4m 간격마다 초석을 놓아 영정주를 세운 후, 너비 20cm 내외의 횡판목과 종판목을 결구하여 틀을 구성한 후, 다시 바깥쪽으로 중간기둥과 보조기둥을 연결하여 판축틀을 고정하였다. 확인된 판축용 틀의 1개 작업공간은 길이 4m, 너비 4.5m이다. 그리고 중심토루를 조성한 후에 내·외피토루를 덧붙였다. 그리고 내외피 토루가 끝나는 지점에 와적층을 조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벽 내·외부에 내·외황을 조성하였다.

제주 향파두리 외성은 성 내측에서 외측으로 생토층까지 제토하여 ‘L’자상의 기저부 정지하여 기저부 석렬과 그 석렬 내부에 적석을 깔아서 배치하였다. 토성의 성벽은 대부분 판축에 의해 축조되었고, 판축에 사용된 흙은 일반적으로 주변의 흙을 이용하였으며 안오름 정상의 화산쇄설물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기저부 석렬의 외곽부분으로 영정주흔과 목주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중심판축토루의 측면에서는 종판목흔이 확인된다. 영정주간의 간격은 대략 360cm이고 목주흔의 간격은 140cm의 등간격 배치를 보인다. 성벽 기저부 석렬에 인접한 내외곽으로 와적층이 확인되며, 와적층 상부에는 점토와 풍화층을 번갈아 쌓아 내외피토루를 완성하였다. 토성 내부의 내측수로에 해당하는 호상의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강화 중성과 제주 향파두리의 토축성벽 축조방식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저부 정지방법과 양단 기저부 석렬을 조성하고, 종판목과 횡판목을 세워 칸 단위의 판축방법에 의한 축성법이 공통점이다. 둘째 영정주의 간격과 목주흔의 간격이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점. 셋째 중심토루를 완성하고 성내외측에 와적층을 조성하여 내외피토루를 배치하는 방식도 동일함. 넷째 성 내측에 내측수로를 조성하는 것도 유사한 방식으로 확인되었다.

강화 중성과 제주 향파두리 외성 축조방식 중 판축틀을 짜서 구간별 축조한 점과 강화 중성의 경우 횡판목 간격이 4~4.5m로 넓어진 것은 삼국시대 이래로 축조된 토성 축성 방식 중 가장 발달된 토목공학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축조방식은 고려말 조선초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몽항쟁기에 축조된 토성의 축성방식은 후대에 이르면서 쇠락하였고, 고려말 조선초의 읍성에서는 석축벽 안쪽에 보강하는 내탁형식으로 변해갔다. 특히 개성의 내성 축조와 태조~태종시에 축조된 한양읍성의 토축성벽은 대몽항쟁기에 축조된 토성의 축조방식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42) 진도의 용장산성은 석축과 토축으로 조성된 성곽이다. 현재 고고학 조사가 된 부분은 석축성벽으로 규모나 축조방식이 내륙의 입보용성곽의 성벽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장성이 비록 도성에 준하게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해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성벽의 축성방식도 주변 지형과 방어전술에 입각하여 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43) 고용규는 기저부 석렬은 판축한 성벽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판축토성이 기저부 내·외벽에 설치한 석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기저부 석렬과는 혼돈의 여지가 있으나, 기단석축이라는 용어는 석축성벽에도 혼용되기 때문에 토축성벽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와 고려시대 판축토성에서는 기저부 석렬이 조성되었기에 ‘판축토성의 기저부 내·외벽 양단에 놓인 석재열’이란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高龍圭, 2001, 「남한지역 판축토성의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그의 견해는 강화도 고려 중성과 향파두리 외성 성벽에서 확인되고 있다.

## IV. 맺음말

江都에는 내성(혹 궁성), 중성, 외성 등이 축조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내성과 고려궁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고고학결과를 통해 보면, 현재의 비정된 위치가 아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도는 그동안 당연시 되어 왔던 고려궁지의 위치가 불분명한 가운데, 창리-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과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구간에서 강화중성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고려 江都 시기인 1250년(고종 37)에 축성된 강화중성은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남은 판축토성으로써 고려시대 판축토성의 축조기법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강화내성과 강화외성의 존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화중성은 고려시대 도성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필자는 II장에서 강화중성의 현황과 관련하여 축성 배경부터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성과 관련한 고고학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축성방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에 강도의 외성을 강화중성으로 보려는 견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고고학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고고학 조사결과를 모식도로 제시하여 강화중성 축조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III장에서는 먼저 강도 강화중성의 축성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과연 강화중성이 삼별초에 의해 축성 되었을가? 하는 의문에 해답을 찾으면서, 삼별초가 항전을 이끌었던 진도 용장성과 제주 향파두리성에 대한 입지 및 배치, 축성방식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강도의 축성주체와 관련하여 고려시대 왕실의 토목영선을 관장하였던 장작감의 기능과 역할 및 운영 사례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고, 개경 나성, 조선시대 한양도성 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강화중성은 고려시대 장작감이 토목영선을 관장하였으나, 삼별초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거나, 이를 보호하거나 감시하였을 임무에 투입되었던 개연성을 이끌어 냈다. 이는 삼별초가 진도 및 제주도로 항전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강화 중성 및 궁궐을 조영할 때의 축성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삼별초 항전기지의 특징과 관련하여 진도의 용장성, 제주도의 향파두리성과 입지 조건, 성곽의 배치구조, 토축성벽 축성방식의 공통점을 도출해 냈다.

필자는 대몽항쟁기 강도와 관련하여, 고고학조사가 한시적이고, 한정된 장소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과 조사기관이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조사의 연계성과 연구의 지속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아쉽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은 강화중성을 강화외성으로 보자는 견해가 또다시 생겨나는 여건이 되었다.

강화도의 현재 여건과 반대적으로 제주고고학연구소가 진행하는 제주 향파두리성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몽항쟁기 해도 입보용 성곽 중 도성 계열의 성곽조사 연구뿐만 아니라 삼별초와 연관하여 축성주체를 파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대몽항쟁기 성곽조사 뿐만 아니라 한국성곽사 연구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필자는 강도의 성곽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가 당시의 소략한 문헌 위주의 연구와 고고학 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에 강도의 성곽에 대해서는 삼별초와 관련하여 진도 용장성, 제주 향파두리성과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고학조사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면 현재의 뒤엉켜진 연구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東國李相國集』, 『朝鮮王朝實錄』, 『輿地圖書』, 『新增東國輿地勝覽』, 『續修增補 江都誌』

### 2. 單行本

江華郡 郡史編纂委員會, 2003, 『新編 江華史』 上.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목포대학교박물관, 2011,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  
 유재춘, 2003, 『韓國 中世築城史 研究』, 경인문화사.  
 尹龍赫,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_\_\_\_\_,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_\_\_\_\_, 2014, 『무인정권·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삼별초』, 해안.

### 3. 調査報告書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조선 궁전지 II』.  
 목포대학교박물관, 2006, 『진도 용장산성』.  
 \_\_\_\_\_, 2009, 『진도 용장산성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_\_\_\_\_, 2010, 『진도 용장산성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도위원회 회의자료』.  
 \_\_\_\_\_, 2011,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 2010 국제학술대회.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2000, 『강화도의 국방유적』.  
 인하대학교박물관, 2011, 『강화 중성유적 : 강화군 창리~신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향파두리 토성 단면조사 간략보고서」.  
 \_\_\_\_\_, 2011, 「사적 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2차) 간략보고서」.  
 \_\_\_\_\_, 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토성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도, 1998,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제주문화예술회관, 2002, 『제주 향파두리향몽유적지 학술조사 및 종합 기본정비계획』.  
 \_\_\_\_\_, 2003, 「제주 향몽유적지 향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_\_\_\_\_, 2004, 「제주 향몽유적지 향파두리토성 보수정비에 따른 토성단면 확인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토성복원구간(내) 문화재 분포조사보고서」.  
 \_\_\_\_\_, 2011,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간략보고서」.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2,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종합정비계획』.  
 중원문화재연구원, 2011, 『강화 옥림리 유적』.  
 한림대박물관, 2003, 『강화고려궁지(외규장각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0, 『강화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 보고서』, 강화군 문화예술과.

### 4. 研究論文

姜在光, 2008,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事』 66.

- 고용규, 2001, 「남한지역 판축토성의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珍島 龍巖山城의 構造와 築造時期」, 『13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진도 삼별초』, 목포 대학교박물관.
- 김대식, 2012, 「고려전기 중앙관제와 唐宋」, 『역사와 현실』 86집.
- 김재명, 1998, 「고려시대 寺·監 관사와 국가재정- 태부시와 장작감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4집.
- 金昌賢, 1999 「고려 開京의 궁궐」, 『史學研究』 57, 1999.
- \_\_\_\_\_, 2001, 「고려 서경의 성곽과 궁궐」, 『역사와 현실』 41.
- \_\_\_\_\_, 2005,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한국사연구』 127.
- 金虎俊, 2012, 『高麗 對蒙抗爭期の 築城과 入保』, 충북대박사학위논문.
- 羅東旭, 1996, 「慶南地域의 土城 研究-基壇石築型 版築土城을 中心으로」, 『博物館研究論集』 5.
- 나영훈, 2012, 「조선초기 繕工監의 운영과 관원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62집.
- 라경준, 2012, 『조선 숙종대 관방시설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 山根幸夫, 李相棟譯, 1994, 「中國의 中世 都市」, 『東洋 都市史 속의 서울』.
- 申安湜, 2000, 「고려전기의 축성(築城)과 개경의 황성」, 『역사와 현실』 38.
- \_\_\_\_\_, 2002, 「高麗 元宗 11年(1270) 三別抄抗爭의 背景」, 『명지사론』 13집.
- 尹京鎭, 2010, 「고려 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 尹龍赫, 1982,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敎育』 32.
- 이정신, 2006,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 29, 고려사학회.
- 이희인, 2012, 『高麗 江都 研究』,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 崔鍾奭, 2008, 「대몽항쟁 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